

우리 가족은 주말 외할머니 생신을 맞아 외할머니 댁에 갔다. 외할머니 댁은 경남 함양! 덕유산 줄기 끝에 자리 잡은 공기 맑고 물 맑은 곳이다. 아빠는 차가 밀릴지 모른다고 서둘렀다. 우리 가족은 짐을 챙기고 출발~!! 우리 집에서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30분 달리는 차속에선 아빠와의 영어퀴즈로 나와 동생이 맞히는 게임으로 지루함을 달랬다. 휴게소의 아이스크림도 남남~ 고속도로에서 내려 외할머니 댁에 가는 작은 도로를 달릴 때 차 창문을 열었다. 순간 맑은 공기가 나의 코 속으로 후욱 들어왔다. 키야~ 상쾌했다. 도시의 우리 집에서 느끼지 못한 느낌이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우리 동네보다 여러 가지 모양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동화 속 그림 같고 마을 주위는 이름 모르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초록으로 물들어 있는 작은 마을 우리 엄마가 낳아 자란 곳 우리 외할머니 댁이다.

우리 가족이 도착했을 때에는 사촌동생 민우와 태흥이, 그리고 서준이가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뭐가 신나는 일들 만들어 볼까?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외할머니 댁 마당에 있는 앵두나무 한 그루 쪽으로 눈이 갔다. 빨갭게 익은 앵두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우리는 맛이 궁금해서 한 개 따서 먹어보았다. 새콤하고 달았다. 우리 동네 편의점에 있는 새콤달콤 보다 맛있었던 것 같았다. 우리는 떨어져있는 양동이를 주워서 앵두를 가득 채웠다. 먹음직했다. 우리는 앵두나무 아래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나하나 동생하나 남남, 외할머니 댁 강아지 '갈대'에게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같이 먹으니 도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급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었다. 하나 둘 먹다보니 거의 다 먹어버렸다. 우리는 마을 입구에 있는 오디나무를 떠올렸다. 우리는 마음을 서로 다잡고 달렸다. 외할머니 댁에서부터 걸어 10분을 걸어 곳을 우리는 5분도 채 걸리지 않고 오디나무 앞에 다 달았다.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는 맛있는 오디보단 벌레가 더 많았다. 순간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 서준이는 막대기로 벌레를 무찌르고 나와 내 동생은 오디를 탔다. 태흥이는 함께 온 갈대를 데리고 있고, 민우는 오디를 담은 그릇을 지켰다. 우리는 자리를 옮겨가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당겼다. 이 작전은 엄청났다. 우리는 오는 길에 오디를 다 먹었다. 근데 나는 걱정 하나를 가졌다. 오디를 안 씻고 먹었기 때문이다. 집에 와 입가에 묻은 보라

색을 본 엄마께서 “너 네 오디 먹었나?” “응” 난 입가를 닦으면 “엄마 그런데 씻지도 않고 먹었어. 어떻게?” “하하 괜찮아” 나는 그런 엄마가 이상했다. 평소에 우리 아파트 화단에 열린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고 씻어먹는다 해도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실까?? 아마도 외할머니 댁은 시골이라서 공기도 맑고 매연도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일까? 차 속에서 아팠던 나의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 덕에 잘 놀 수 있었다. 밤에는 동생들과 엄마랑 산책을 하였다. 좁은 흙길을 걷고 있었는데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다. 나는 도깨비불 일까봐 덮고 있던 담요로 동생들을 감쌌다. 그러나 그것은 반딧불이었다. 작은 것이 불빛을 내니 귀엽기도 했다. 그리고 곧 반딧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말 아름다웠다. 엄마께서는 반딧불은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만 살아간다고 하셨다. 나는 그 때 외할머니 댁이 자랑스러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한껏 반딧불을 구경한 후에 나는 동생들과 잠들었다.

다음날, 서준이는 먼저 집에 갔다. 나는 그런 서준이가 불쌍했다. 다시 답답한 도시로 가다니..... 서준이와 작별인사가 끝나고 아쉬움은 잊고 물놀이를 하였다. 파란색 큰 물뿌리개에 계곡물을 한껏 퍼서 물뿌리개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며 워터쇼도 하고 갈대와 마을 한 바퀴 놀이도 하였다. 도시의 워터파크보다 100배 더 재미있었다. 이게 바로 깨끗한 공기,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인 것 같았다. 그리고 휴대폰게임 보다 더 보람차고 신났다. 민우는 페트병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지 않고 평상에 두었다. 그런데 그 속에 벌이 들어갔다. 우리는 신기하였다. 그리고 나는 ‘벌도 깨끗하고 맑은 물을 좋아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결국 벌은 죽었다.) 한참 물놀이를 즐기고 마을 한 바퀴 놀이 중 소나기가 왔다. 우리는 비를 맞았다. 나는 내 머리가 걱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엄마께서 “비 맞으면 머리카락 다 빠진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엄마한테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했다. 그러나 엄마는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다. 엄마는 나쁜 산성비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외할머니 댁에서 무엇을 해도 엄마의 잔소리가 없다. 그리고 1시간후, 나는 집에 가야만 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야되기 때문이다. 나는 큰 숨을 여러 번 반복하

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내쉬며 차에 탔다. 동생들과 작별인사를 했다. 외할머니 댁을 나서는 차 속에서 난 ‘여기에 있는 공기를 한아름 들고 가서 우리 동네와 우리 학교 운동장에 뿌리면, 머리가 맑아 질 정도로 맑은 공기의 이 냄새를 코 끝으로 느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 할 것 같다. 미래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